

제목: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말씀: 누가복음 2장 8-20절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소식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소식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예수님 오심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 알지 못하던 \_\_\_\_\_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지금의 상황에 큰 \_\_\_\_\_와 회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3. 그 소식은 \_\_\_\_\_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윤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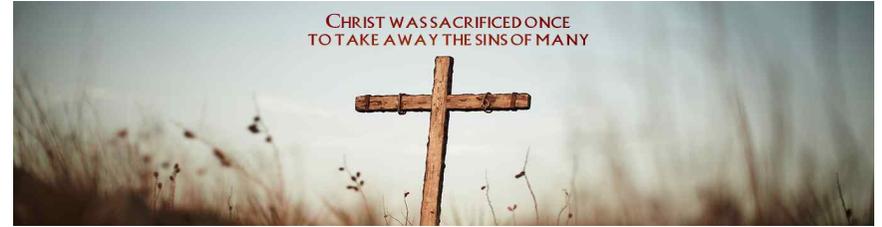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성탄 주일 예배 Christmas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인도: 김성민 목사

12: 30 PM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 누가복음 2장 8-20절 ..... 설교자  
Scripture Reading Luke 2: 8-20 신약 89 페이지 Presider
- 말씀 ..... "큰 기쁨의 좋은 소식" .....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 (122장) 찬반가운 성도여 .....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 담임목사 컬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해 12월은 요즘 들어 가장 추운 12월인 것 같다. 성탄절을 맞으며 얼음 폭풍으로 지난 며칠 동안 우리 모두 발이 묶여 있었다. 하지만 그 추위도 며칠을 더 가지는 못하고 있다. 오늘부터 곧 비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보니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또한 건강 적으로 얼어붙은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계절의 심한 변화로 인하여 더욱 얼아 붙은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런데 결국은 날씨도 제자리로 돌아왔고 성탄절도 되었다. 주춤하는 것 같았지만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때는 많은 걱정과 근심을 드러내게 한다. 주위의 상황과 소식들이 그렇다. 하지만 봄과 여름이 오듯이 역사가 흘러가야 할 곳으로 결국에는 흘러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역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은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지만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지 아닌지의 다름이다. 결국 그것으로 인생의 결론이 정해지고 또한 세상의 가는 길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다.

겨울이 추워서 걱정이 된다. 하루 일을 하지 못하면 생기는 손해와 상황의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나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하다.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요 주체나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할 뿐이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게 이 시대를 당해 내는 것이다.

겨울이 아무리 깊어지고 추워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 보이며 그 길을 따라서 안전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늦 활을 당기도다” (사무엘하 22장 33-35절)라고 말씀해 주신다.

걱정 할 것 없다. 근심도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보내게 될지 걱정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더욱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셨다. 우리가 깨달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그러면 2023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후회와 낙심은 감사와 소망으로 자리 잡고 추위와 두려움은 충만함과 기대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당대히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자.

## 교회소식

###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개척교회에 새로이 세례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회복의 사역을 위하여

###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1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서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5. 성탄 선물

지난 주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지 못한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6. 12월 계획

1월 1일(주) 신년예배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송구영신 예배가 없습니다.)

###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http://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mailto:newchurchoregon@gmail.com)